

상생뉴스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Rail Network 실현

/ 발행인 강영일 / 편집인 신철수 / 기사문의 042)607-3085 / http://www.kr.or.kr /

호남고속철도 개통준비 착수!

- 내년 3월 개통 위해 전 직원 구슬땀 -

기술본부(본부장 김상태)는 내년 3월 개통예정인 호남고속철도의 우수한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및 코레일과 함께 종합점검 등 막바지 개통준비에 들어갔다.

본부는 우선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호남고속철도의 궤도, 전력선, 신호·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공종별 단위시험을 완료했으며 지난 8월까지 고속열차를 투입해 궤도와 열차 간 동적거동, 전차선 이선율, 전력 공급상태 등 성능과 품질을 확인했다.

9월에는 선로전환기 및 자동열차제어장치(ATC) 등 신호시스템에 대한 종합시험을 시행하고 10월부터는 정읍 ~ 익산 구간에서 시행중인 호남고속차량(22개 편성) 성능시험을 호남고속철도 전 구간으로 확대해서 시행할 예정이다.

이어 11월 10일부터는 코레일과 함께 개통 시까지 고속열차를 시속 300km/h로 운행하면서 총 47종의 시설물검증시험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궤도·교량성능검증, 전력품질 및 연장급전시험, 전차선 귀선전류 및 고조파 확인, 차량진동특성시험, 외부소음 시험 등 핵심 10개 항목은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해 종합시험결과와 신뢰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국토교통부에서는 9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외부 전문연구기관과 협회·학계·산업계를 망라한 '민관합동 종합안전점검반'을 구성해 호남고속철도의 전반적인 시공품질에 대해 정밀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본부 관계자는 "호남고속철도 마무리 공사와 함께 공종별 시험, 외부전문가 점검, 종합시험운영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고속철도의 우수한 품질 및 성능 확보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 합동 종합안전점검

- (목적) 2015년초 개통예정인 호남고속철도의 품질·안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시설물점검* 시행

- 「호남고속철도 개통운영준비 종합계획」('14.7.14 국토교통부)에 따라 국토교통부 주관의 외부전문가 포함 민·관 합동점검단 구성·운영
- 「호남고속철도 개통운영준비 종합계획」: 총12개 분야 42개 단위업무

분야	단위업무	주관	실행	협조
종합계획공정표 개정 및 시설물 점검	전 분야 외부전문가 시설물점검	국토부	국토부, 외부	공단, 공사

- (점검단 구성·운영) 「민관합동 안전점검단」구성·운영하여 호남고속철도 건설품질·안전 등에 전반적인 검증 실시

- 7개 팀(토공, 터널, 교량, 궤도, 건축, 전철전력, 신호/통신), 39명으로 구성,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의 전반적인 관리 사항을 점검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협회·학계·산업계 전문가로 구성

- (점검사항)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송정) 전 부문에 걸쳐 시공·감리 등을 심층 점검

- 고속철도 건설공사의 시공·감리 품질에 관한 사항
-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 고속철도 건설공사 사업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점검일정) : '14.9.15~10.17

신경주-포항 KTX 개통대비 '인수운영전담반' 활동 시작!

- 공단, 코레일 합동점검 착수 -

개통종합관리단TF는 주요 시설물공사가 마무리단계인 신경주 ~ 포항(39km)구간의 성공적인 개통을 위해 지난 26일부터 공단·코레일 합동으로 '인수운영전담반' (공단 20명, 공사 32명)을 구성했으며 29일부터 시설물 합동점검에 들어갔다.

인수운영전담반은 내년 1월부터는 KTX차량을 투입해 종합시험운영(시설물검증시험, 영업시운전)을 시행할 계획이며 장애인 협회 등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이용자 점검을 시행해 시설물의 안전성은 물론 이용자의 편리성까지 세심하게 준비할 예정이다.

신경주 ~ 포항간 KTX운행을 위한 철도건설 공사의 현재 공정율은 88%로 오는 11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분야별 공정률을 보면 노반(토목)공사가 공정을 95%로 마무리 단계이고 궤도, 건축공사가 70%, 전기, 통신, 신호 등의 시스템공사가 50 ~ 60%이다.

관리단 관계자는 "2015년 3월 신경주 ~ 포항구간 철도가 개통되면, 포항에서 서울까지 현재 새마을호 운행시간 5시간 10분 보다 3시간이 빨라진 2시간10분만에 도착할 수 있다"며 "포항시 등 경북 북동부지역까지 KTX수혜지역으로 확대돼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주민들의 반나절 생활권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 인수운영전담반

- 인수운영전담반 구성운영 목적 (근거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25조의1)

- 신경주 ~ 포항구간의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시행, 개통운영 전 미비사항 등을 개선하여 영업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함

※ 인수운영전담반 임무(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25조의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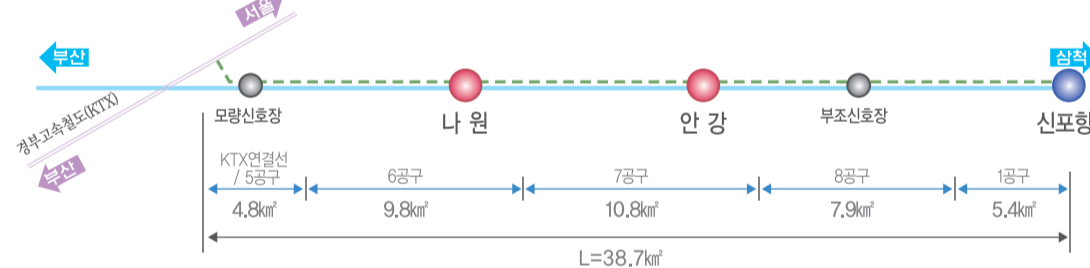
- 인수운영전담반 구성 운영 및 점검계획 수립 시행
- 점검결과 조치 및 이행에 관한 사항 협의
- 철도시설의 사용권한 및 관련자료 인수인계
- 개통 이후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 역사시설물에 대한 이용자 편의시설 확보
- 기타 개통 및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업무

- 인수운영전담반 구성(안)

- 반 장 : 공단 개통종합관리단 부단장
- 시설점검팀 : 팀장 공단 개통관리팀장(노반, 궤도, 안전 등 9개분야)
- 운영점검팀 : 팀장 공사 기술안전팀장(안전, 운전, 차량 등 12개분야)

- 운영기간 : '14. 9월 ~ 개통 후 3개월까지

- 노선도



다산(茶山)의 향기를 따라 '청림의 길' 걷다!

- 청림나무 만들기 등의 행사 통해 청림의지 다져 -



기획혁신본부는 지난 29일 본사 대강당에서 임직원의 청렴문화 생활화를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다산의 향기를 따라 청림의 길을 걷는 KR' 행사를 개최하고 청렴 실천을 다짐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내부 및 외부 고객과의 10대 약속을 정해 함께 낭독하고 청렴 의지를 다졌으며 전 직원이 참여한 '청림나무 만들기'에서는 각자의 청렴 실천 각오와 청렴에 대한 희망의 메세지가 담긴 「청림 열매」를 매달고 청렴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난 7월 전관예우 방지, 전사적 청렴 및 윤리의식 내재화를 위해 구성한 「철도신뢰회복미래발전TF」에서 그동안 추진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경과 보고회를 갖고 업무 속에 청렴문화를 저해하는 요소가 없는지 각자의 업무를 꼼꼼히 돌아보고 선제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다짐 행사 후에는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을 초청해 '다산사상에 나타난 공직윤리'라는 특강 시간을 갖고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청렴(淸廉)」및「절용(節用)」의 다산사상을 배우며 청렴을 생활화 할 것을 다짐하고 앞으로도 생활 속에 청렴이 스며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그간 임직원 행동요령인「KR인 클린 10훈」제정(8.21), 청렴상황극 시행(8.26), 임직원 행동지침 마련(9.15), 청렴 법무교육 실시(9.15), 간부직원 대상 국민권익위원회 교육 수료(9.16) 등을 펼친 바 있다.

우송대학교와 '철도전문인력 양성' 협약

- '선순환 협력방식'으로 맞춤형 철도전문인재 양성 기대 -

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지난 16일 해외철도시장 진출 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철도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해 우송대학교(총장 존 앤디켓)와 포괄적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철도기관과 대학간의 산학협력은 특정연구 또는 교육 등 단일사업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으나, 이번 협약은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공단의 중견직원이 대학 재학생들에게 현장지식을 전수해 철도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재를 맞춤형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협력방식이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연구성과 및 축적된 기술자료를 상호 공유하고 해외 철도기관 및 교육기관과의 공동 교류협력과 해외사업의 공동 추진 등 철도기술 발전 및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상호 포괄적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공단은 우송대와의 산학협력을 통해 현재까지 35명의 직원이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2016년까지 추가로 총 65명을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글로벌 고급인력으로 양성해 해외시장 진출 확대 및 철도기술 개발을 전담토록 할 계획이다.

우송대는 철도물류대학(학장 정찬목교수)의 5개 철도관련 학과를 통해 매년 330명의 철도 전문인재를 배출하고 있으며 철도기술연구소, 철도토양환경연구소 등 기술 연구를 활발히 수행해 최근에는 국토교통부 및 교육부로부터 철도분야 인력양성 특성화사업단으로 선정됐다.

협약체결 후, 강 이사장은 우송대 철도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철도의 비전과 젊은이들의 꿈과 도전'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글로벌 도전 극복과 한국철도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